

2023. 7. 8.(토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7월 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상가운영처장	박 호 진	02-2290-7270
팀 장	이 광 재	02-2290-7290
담 당 자	유 민 오	02-2290-7295
관련 누리집	www.sisul.or.kr	

서울시설공단 장마철 맞아 서울 지하도상가 고령 상인 대상 전기안전 집중점검

- 을지로, 종로 등 25개 지하상가 자체점검 어려운 70세이상 점포 장마철 전기점검
- 600여개 점포대상, 감전 및 누전사고 점검 통해 시민 밀집시설 안전관리에 만전
- 한국영 이사장 “관심 필요한 곳 세심히 살펴 시민 안전과 편의 향상 위해 지속 노력할 것”

- 서울시설공단 (이사장 한국영, www.sisul.or.kr)은 을지로, 종로, 강남 등 서울시내 2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전기 안전 집중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.
- 공단은 올여름 엘니뇨 발달로 인한 이상기후로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전기설비 자체점검이 쉽지 않은 70세 이상 임차인 운영 6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장마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.
- 이번 점검에서는 장마철 물기로 인한 감전 및 누전사고에 대비하여 점포 세대 분전반 내 습기 여부와 콘센트 분리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전기설비의 과열상태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전기설비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. 이 밖에 바람직한 전기 사용법과 누전 차단기 점검방법, 긴급출동 서비스 신청방법 등도 해당 점포 방문시

안내할 계획이다.

-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‘약자와의 동행’ 정책에 맞춰 지난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고령 임차인 대상 무료 전기안전 점검 서비스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.

- 6개월간의 서비스 결과 전기안전 점검을 받은 임차인들의 감사 사연도 이어졌다. 회현 지하도 상가에서 우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A씨는 “나이도 있고 장사에 신경쓰다 보니 어디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신경을 잘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세심하게 점검을 해줘서 불안감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서울시와 공단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.” 고 말했다.

-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장마철 집중호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점검 및 제거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며 “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관심이 필요한 곳을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- 한편,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‘약자와의 동행’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. 공단은 지난 해부터 시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198건의 약자 보호 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. 공단은 최근 상수도 검침 담당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취약가구 대상 ‘동행 우편함’ 설치를 진행했고, 여성용품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생용품 세트를 제작해 전달하는 등 약자 및 소수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.

<관련사진>

